



즉시 배포용: 2021년 12월 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가 코로나19로 확인된 다섯 가지 사례를 발표합니다.  
뉴욕에서의 오미크론 변이 사례**

Kathy Hochul 주지사가 금일 뉴욕주에서 최초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다섯 가지 사례는 상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의 유전자 염기서열결정을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한 사례는 남아프리카를 여행한 이력이 있는 주민이 거주하는 서퍽(Suffolk) 카운티에서 나왔습니다. 이 주민은 국내에서는 증상이 없었다가 여행하고 나서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반응 검사실(Pandemic Response Lab, PRL)에서 실시한 유전자 염기서열결정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네 가지 사례는 뉴욕시 주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검사 중이던 주민의 자치구의 기타 사례가 뉴욕시 공공 보건국(Public Health Lab)에서 확인된 반면, 퀸즈(Queens)에서 나온 두 사례 및 브루클린(Brooklyn)에서 나온 한 사례는 PRL에서 확인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일 오전에 오미크론 변이의 발생을 처음 알았을 때, 이곳 뉴욕주에서 발견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하려는 노력 및 팬데믹에 합동하여 대처하는 노력에 있어서 저희와 긴밀히 협력하시는 de Blasio 시장님 및 그의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것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전국, 주, 현지 수준에서 저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뉴욕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전체 뉴욕 주민들이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추가 접종과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 덕분에, 우리는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하여, 이 팬데믹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시민들이 자신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백신을 접종받고, 부스터샷을 맞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들 뉴욕주 사례는 보건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와 함께 한 Hochul 주지사의 오전 발표 후에 나왔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최근 자빗 센터(Javits Center)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대회에 참석하면서 뉴욕시에서 시간을 보낸 미네소타 주민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주지사 및 보건 커미셔너는 이 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들 사례는 이 대회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보건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금일 오전 주지사님의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뉴욕 주민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백신 접종을 해야 하고, 이미 접종을 했다면 추가 접종을 해야 하며,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변이에 대해 계속 깊이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대중이 공포에 빠지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저희가 보유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공 보건국, 워즈워스 센터(Wadsworth Center)를 포함하여, 뉴욕주 전역의 공공 보건국은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 및 연구하기 위한 유전자 염기서열결정 노력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뉴욕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희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공공 보건 전문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뉴욕 보건부의 워즈워스 센터(Wadsworth Center) 실험실은 유전자 염기서열을 비교하고, 오미크론을 포함하여, 확산 및 새로운 변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 전체에서 선택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을 계속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공공 보건국은 또한, 변이 분석을 위해 탄탄하며 공동의 감시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뉴욕주 전역 및 미국 전역에 있는 다수의 기타 유전자 염기서열결정 실험실이 공공 유전자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워즈워스 센터(Wadsworth Center)는 현재 대략 하루에 최대 100건의 역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건본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본은 모든 지역에 걸쳐 감시를 제공하기 위해 주 전체에서 임의로 선택되며, 자료는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에 걸쳐 분석됩니다. 분석은 관심을 끄는 변이 및 흥미를 끄는 변이를 나타내는 돌연변이 평가를 포함합니다.

뉴욕주 소재 기타 보건국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워즈워스(Wadsworth) 및 기타 보건국에서 온 결과들은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주로 GISAID에 업로드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주 전체에서 더욱 완전한 바이러스 추세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고 시간이 감에 따라 간추려진 이들 변종을 배포하기 위해, 모든 기여자들이 보내온 유전자 염기서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는 이 자료를 모든 뉴욕 주민들이 코로나19 변이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